



2014년 4월 21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계량분석 | 안 혁 ☎ 3276-6272
- 파생/ETF | 강송철 ☎ 3276-6181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2015년 예산안과 공기업 배당

• 경제분석

주요국의 일본 의존도 감소로 J-커브 효과 지연

• 이머징마켓 동향

정부의 안정성장 강조 불구 상해종합 약보합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바텍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SDI 외 5개 종목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처거래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11(금)	4/14(월)	4/15(화)	4/16(수)	4/17(목)	4/18(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97.44	1,997.02	1,992.27	1,992.21	1,992.05	2,004.28	
	등락폭	-11.17	-0.42	-4.75	-0.06	-0.16	12.23	
	등락종목	상승(상한)	342(1)	409(1)	406(1)	398(2)	400(3)	469(1)
		하락(하한)	447(0)	387(0)	388(0)	395(0)	377(0)	309(1)
	ADR	104.92	106.78	104.42	103.80	107.72	107.94	
	이격도	10 일	100.15	100.07	99.83	99.86	99.86	100.39
		20 일	101.36	101.16	100.78	100.64	100.45	100.89
	투자심리	70	60	50	40	40	50	
	거래량 (백만 주)	218	206	195	231	200	202	
	거래대금 (십억 원)	3,558	2,951	3,499	3,311	2,910	2,723	
코스닥	코스닥지수	555.87	562.04	562.11	565.96	565.75	571.23	
	등락폭	0.77	6.17	0.07	3.85	-0.21	5.48	
	등락종목	상승(상한)	342(5)	409(7)	406(15)	398(20)	400(7)	550(8)
		하락(하한)	447(0)	387(0)	388(0)	395(1)	377(2)	362(0)
	ADR	99.31	107.44	103.50	105.23	106.22	106.27	
	이격도	10 일	100.39	101.13	100.90	101.44	101.25	102.03
		20 일	101.44	102.32	102.14	102.62	102.36	103.12
	투자심리	70	60	50	40	40	50	
	거래량 (백만 주)	302	282	362	385	386	343	
	거래대금 (십억 원)	1,859	1,895	2,023	2,292	2,462	2,130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236.3	684.2	782.8	234.0	96.2	206.1	80.3	20.2	146.03	33.6
	매도	1,513.5	550.2	643.2	147.6	79.1	221.3	42.0	25.8	127.6	30.0
	순매수	-277.1	133.9	139.5	86.4	17.1	-15.2	38.3	-5.6	18.4	3.6
	4월 누계	-1,026.5	2,600.9	-1,547.8	-586.1	-28.9	-969.9	-126.0	-175.2	338.4	-26.6
	14년 누계	1,117.9	-908.4	-499.9	-2,662.4	412.6	192.6	-95.6	-525.5	2,178.5	290.4
	코스닥	매수	1,899.5	113.6	119.1	25.9	17.9	34.5	12.8	3.7	24.3
매도		1,982.4	66.6	81.6	20.5	9.0	27.0	4.7	1.8	18.5	21.2
순매수		-82.9	47.0	37.6	5.4	8.9	7.5	8.1	1.8	5.8	-1.7
4월 누계		-240.7	185.0	118.4	52.9	48.3	14.6	9.6	-15.2	8.2	-62.7
14년 누계		-709.4	781.6	276.5	73.6	133.8	-20.0	17.9	7.8	63.5	-348.7

2015년 예산안과 공기업 배당

2014년 Target KOSPI	2,150pt
12MF PER	10.0배
12MF PBR	1.01배
Yield Gap	7.1%P

- ▶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 2015년에도 공기업 정상화와 배당 확대 기조 지속될 전망
- ▶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은 일종의 안전마진
- ▶ 투자전략 : 이번 주에는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에 주목

■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정부의 재정균형 의지

지난 주 정부가 37개 출자 공기업의 이익 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련 분석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쪽이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자기업 배당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은 적정 배당모형을 검토하기 위한 통상적인 것이며, 정부 출자 공기업 배당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연구 용역을 의뢰해 결과물이 나오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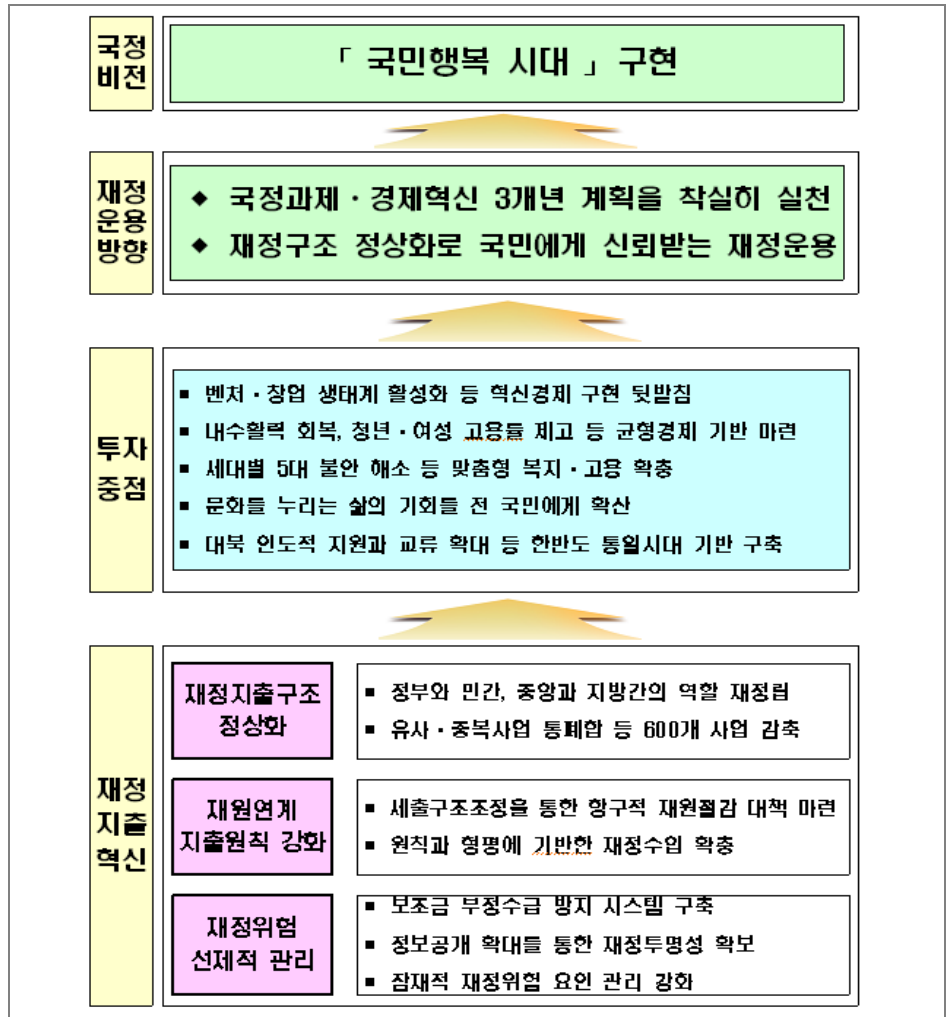
그러나 정부가 재정여건에 신경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확정되었는데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쪽이었다.

각 분야마다 ‘중점 투자방향’과 ‘지출 효율화 계획’이 함께 들어가고, 세입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유가증권, 부동산 등 국유재산은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 배당수입은 유사/동종업종의 민간 배당성향, 배당 기업체의 배당가능이익 및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며
- ▲ 연간 500억원 이상이거나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은 사전 협의절차를 준수하며 협의절차 미이행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노력 유도
- ▲ 규제 완화 통해 민간투자 적극 활성화
- ▲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통합부채관리 체계 구축
- ▲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재정누수 방지

종합하면 1) 공기업의 부채증가를 억제하고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2)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3)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은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그림 1]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주들은 구조조정과 요금인상 가능성 등으로 큰 폭 상승했지만, 현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공기업 배당성향에 대해
지속 관심 필요**

특히 공기업의 배당성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 필요하다. 얼마 전 모 일간지는 정부가 적정수준 이상의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으나 현오석 부총리는 얼마 전 대기업의 투자위축, 고용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는 다르다. 현 정부의 기조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기업과 자본의 참여를 독려하되,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7월 조세연구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배당성향 비교분석’ 자료에서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이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특히 대규모 SOC 공기업과 에너지 공기업의 배당성향이 더욱 낮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09년까지 정부배당대상 공공기관의 배당은 특정한 기준없이 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수익을 재정수입으로 환원하지 않고 내부 유보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높은 성장성이 요구되기보다는 안정성이 유지되는 분야라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내부유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직접 배당을 받는 공기업

현재 정부가 직접 배당을 받는 상장사는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4개에 불과하나 지자체 등 준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까지 포괄하면 강원랜드, GKL,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산업이 추가된다.

<표 1> 2013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 총괄표

(단위: 억원, %)

기관명	12년 배당	13년 배당	배당성향	전년대비
기업은행	2,433	1,678	23%	-755
한국수출입은행	212	232	23%	20
한국수자원공사	470	492	18%	22
한국가스공사	158	340	24%	182
한국도로공사	6	2	18%	-4
부산항만공사	244	152	26%	-92
인천항만공사	22	21	23%	-1
울산항만공사	66	43	30%	-23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	18	15%	3
농어촌공사	128	97	15%	-31
대한무역진흥공사	68	28	17%	-40
한국자산관리공사	416	146	27%	-270
한국토지주택공사	373	715	10%	342
한국주택금융공사	109	208	17%	99
한국공항공사	168	212	28%	44
한국감정원	0	2	20%	2
한국관광공사	0	105	22%	105
한국석유공사	0	0	22%	0
산은금융지주	0	319	88%	319
배당기관 계 (19개)	4,888	4,810		-78
한국정책금융공사	1,107	0		-1107
한국광물자원공사	3	0		-3
한국조폐공사	0	0		
한국방송공사	0	0		
한국교육방송공사	0	0		
한국철도공사	0	0		
서울신문사	0	0		
한국전력공사	0	0		
여수광양항만공사	0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	0		
물납주식	50	58		8
합계 (29개)	6,048	4,868		-1180

자료: 기획재정부

〈표 2〉 공공기관 유형별 평균 배당성향

(단위: 개, %)

유형	기관수	배당성향	총자산수익률	내부유보율	임의적립금비율
기타	5	21.89	3.24	0.72	24.65
시장형	6	16.97	0.94	2.44	213.33
준시장형	8	15.63	2.91	9.03	753.65
준정부 (기금 및 위탁)	5	11.1	2.34	1.25	51.4

자료: 조세연구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느냐 여부일 것이다. 본업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도 있지만, 본업 자체가 부진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전기판매 부진으로 실적이 지속 좋지 않았고 인천중합에너지 매각을 조만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랜드 역시 배당한도 하향, 매출 총량제 등으로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다.

**배당에 대한 기대는
일종의 안전마진**

그러나 배당에 대한 기대는 주가에 있어 일종의 ‘안전마진’ 역할을 한다. 현 정부의 기존 자체가 공기업의 정상화와 효율화, 재정의 건전화에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흐름이 민간기업의 배당성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만큼, 배당수익률이 높은 회사에 대해 재차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동 기업의 배당수익률은 대부분 국고채 3년물 금리인 2.8%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분간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지난 주 미국 경제지표 개선으로 미국 금리는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였으나 작년과 달리 외환시장의 달러 강세는 제한되고 있다. 얼마전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자넷 옐런 FRB 의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신흥국과 협의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사 채권 애널리스트인 이정범 위원은 ‘머지 않아 기준금리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인식이 힘을 얻고 있으나 현재 A등급 회사채 5년 금리는 2013년 한국경제의 명목GDP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며, 과도한 통화완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하고, 경기회복 전망이 가시화되는 등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는 증거가 나와야 금리상승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 투자전략 : 원/엔 환율 주목

**IMF 연례협의 보고서
: 원화 8% 저평가 주장**

이번 주에는 원/엔 환율 1,000원 하향 돌파가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강세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8일(금)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REER)이 균형환율보다 8% 저평가되어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지금 수준으로 충분하며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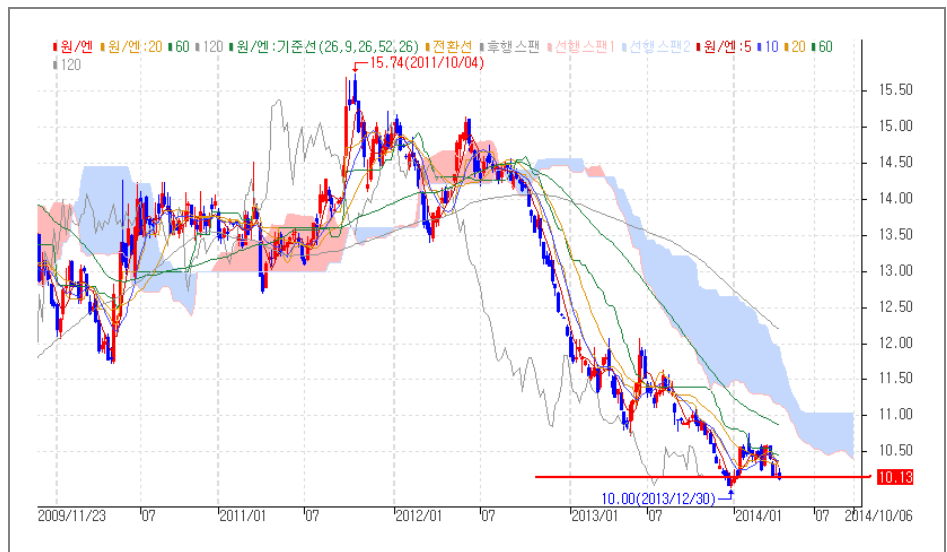
또한 ‘한국의 환율정책은 통상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수반되었으나 통상 원화 절상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자소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외환 보유액 증가, 원화가 절상될때 치솟는 선물환 포지션이 좋은 예이며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 까지 원화 절상기에 한국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이 82%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완화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만, 정부 관료들은 BOJ의 양적완화 규모 확대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나카하라 노부유키(中原伸之) 전 일본은행 정책 위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상승할 때까지 FRB가 양적완화를 1차부터 3차까지 실행했던 것처럼 BOJ도 100조 엔 규모의 두 번째 양적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나 엔화가 추가적인 강세로 흘러가기 힘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IMF의 주장대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원/달러 환율이 8% 추가 하락한다면 환율은 950원까지 내려가야 한다. 특히 이번 주의 경우, 원화가 4월 초 기록한 1,030원까지 하락하고 엔/달러 환율이 103엔까지 상승한다면 원/엔 환율은 5년래 최저점인 1,000원까지 재차 하락하게 된다.

물론 관련 업종의 경우, 신제품 출시 등의 사이클을 고려하면 작년과 올해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러나 통상 어떤 지표이든 Key Level을 돌파하는 경우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IT 등 원/엔 환율에 통상 민감하게 반응했던 업종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2] 원/엔 환율 : 직전 저점에 다시 근접 중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1 : 주간 글로벌 업종별 등락을 상위/하위

주간 Bloomberg World Index 69개 업종 가운데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은 광고, 트럭 & 리스, 석유&가스 서비스, 바이오, 그리고 우주/국방 등이었고 가장 성적이 안 좋았던 업종은 석탄, 조선, 헬스케어 서비스, 철강, 호텔/카지노 등이었다.

석유/가스 서비스 :
유가 상승 및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최근에는 석유&가스 업종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주 대비로는 3.4%, 연초 대비로는 9.2% 상승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 불안감,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슬럼버거(Schlumberger), 할리버튼(Halliburton), 베이커 휴즈(Baker Hughes)는 연초대비 각각 12.5%, 21.8%, 26.4% 상승했다. 할리버튼의 경우 최근 들어 1분기 이익 추정치가 약 20%. 연간 이익 추정치가 3~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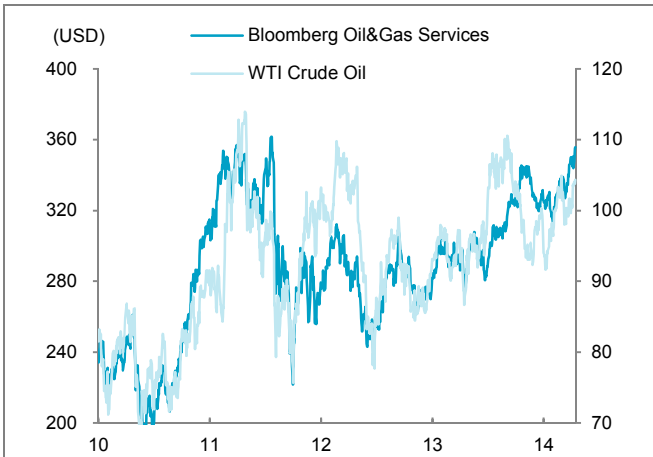
큰 그림에서는 셰일가스 탐사 및 시추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가 한몫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동반구(Eastern Hemisphere)’, 즉 아프리카, 중동, 중국 등에서의 수요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작년 9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한 중국은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한편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사우디 아람코 역시 할리버튼과 슬럼버거 등과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할리버튼의 2013년 동반구 대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7%, 23% 증가했고, 베이커 휴즈의 경우도 비슷한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표>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 연초대비 수익률 상승/하락 상위

상승 상위	수익률 (%)	하락 상위	수익률 (%)
광고	3.92	석탄	-2.01
트럭&리스	3.79	조선	-1.92
석유&가스 서비스	3.42	헬스케어 서비스	-1.27
바이오	3.13	철강	-0.84
우주/국방	3.00	호텔/카지노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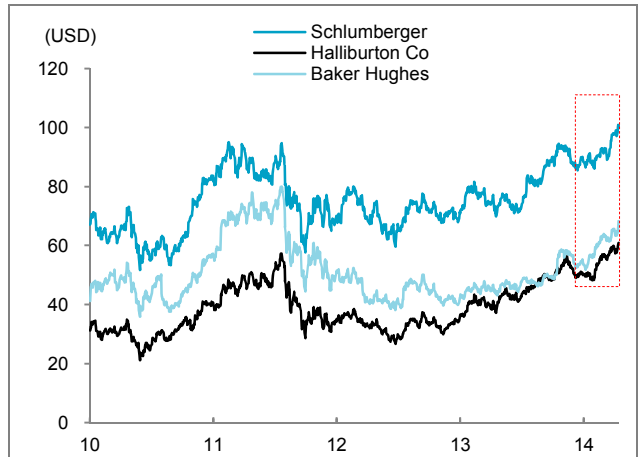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 Bloomberg World Oil&Gas Services의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Bloomberg World Oil&Gas Services 주요 기업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주간 실적 추정치와 일정

글로벌 기업실적 추정치의 하향 추세 지속. 다만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 IT 등 일부 섹터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 관찰 필요.

〈표〉 주간 IBES 기업실적 추정치 변화

	한국	EM	선진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시장 전체	-1.01	-0.45	-0.44	-0.21	-0.24	-1.26	-0.73
에너지	-5.12	-0.23	0.05	-0.23	-0.13	-3.82	-0.91
소재	-3.52	0.13	-1.41	-0.35	-0.34	0.31	-1.89
산업재	-1.62	-1.42	-0.16	-0.11	0.03	-2.18	-0.26
경기소비재	-0.60	-0.15	-0.51	-0.56	-0.55	-0.62	-0.10
필수소비재	-0.56	-0.89	-0.56	0.02	-0.34	-1.45	-0.71
헬스케어	-30.75	-0.53	-0.03	0.23	-0.60	-2.63	-0.37
금융	-0.79	-3.57	-0.97	-1.36	0.25	-0.39	-0.84
IT	-0.24	0.16	0.42	0.44	0.53	0.05	-0.40
통신서비스	-5.52	-1.82	-1.07	0.73	-1.14	-4.06	-1.46
유틸리티	0.54	-0.59	-0.36	0.66	-3.45	-0.32	-0.03

주: 12MF EPS 전월비 변화율, 매주 목요일에 직전 주 목요일 데이터가 업데이트
 자료: Thomson Financial, MSCI

〈표〉 이번 주 주요 일정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日> 3월 무역수지 (조 엔) (n/a, -1.81, -0.80) 2월 최종 선행지수 CI (n/a, n/a, 108.5) 2월 최종 동행지수 (n/a, n/a, 113.4) 실적발표> 美 김벌리클라크	美> 3월 기준주택매매 (n/a, 455만, 460만) 유럽> 4월 예상 소비자기대지수 (n/a, -9.3, -9.3) 4월 유로존 예상 제조업 PMI (n/a, 53.0, 53.0) 실적발표> 美 넷플릭스, 컴캐스트, 맥도날드, 제록스, 염! 브랜즈, AT&T 韓 삼성엔지니어링	美> 3월 신규주택매매 (n/a, 45만, 44만) 독일> 4월 예상 제조업 PMI (n/a, 53.8, 53.7) 실적발표> 美 P&G, 페이스북 韓 LG디스플레이, 삼성카드	韓> 1분기 예상 GDP SA QoQ (n/a, 0.7%, 0.9%) 美> 3월 내구재 주문 (n/a, 2.0%, 2.2%) 실적발표> 美 쉘컴, 애플,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너럴 모터스, 쓰리엠, 비자, 아마존닷컴,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韓 SK하이닉스, S-Oil LG생활건강, 포스코, 삼성물산, 대림산업,	美> 4월 최종 미시간대 기대지수 (n/a, 83.0, 82.6) 日>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6%, 1.5%) 실적발표> 美 포드 韓 하나금융지주, SK KB금융, 삼성전기, 삼성SDI,

정리: 한국투자증권

주요국의 일본 의존도 감소로 J-커브 효과 지연

■ 100엔 초반대에 갇힌 엔달러 환율

아베 내각 출범 가능성이 고조됐던 201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엔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24% 절하됐다. 초기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초기 8개월 동안에는 엔화 약세 속도가 월평균 3.5%로 상당히 빨랐으나, 작년 5월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조기 출구전략 시사 발언 이후로는 추가 약세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최근 이머징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여야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것과는 상반된 행적이다. 최근 엔화 강세는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조정, 2월 경상수지 흑자 반전,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 경기의 더딘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림 1] 엔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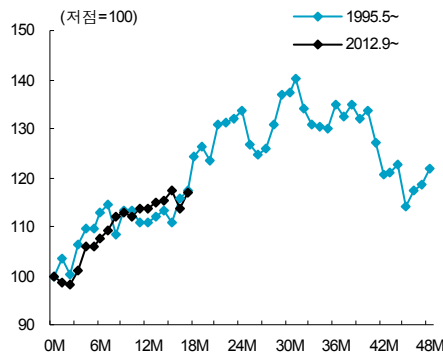
■ 엔화 약세로 인한 일본 실질 수출 증가는 미흡

엔화 약세가 시작된 이후의 일본 수출은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엔화 표시 수출은 약 17% 증가했지만, 물량 기준 실질 수출은 0.7% 늘어 사실상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됐으나 실제 생산활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크게 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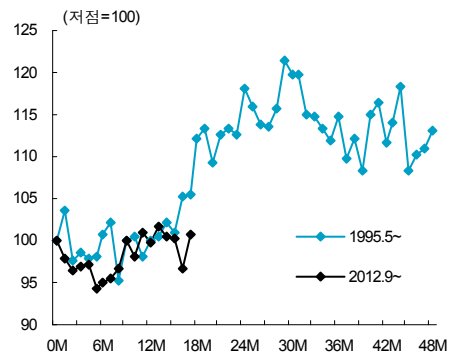
J-커브 효과는 시장의 기대보다 더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엔화 절하 초기에는 달러 표시 수출 단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요가 바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금액이 감소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 단가 인하에 반응해 해외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J-커브 효과인데, 문제는 수요가 부진한 데 있다.

장기간 엔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던 1995년의 사례를 보면 처음 9개월 동안 수출이 감소한 후 10개월째부터 늘기 시작했으며, 17개월째 이르러 수출 물량 증가세가 큰 폭 확대됐다. 그런데 당시는 아시아가 외환위기 조짐을 보였어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와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신흥선진국, 유럽은 위기를 겪지 않았으며 일본은 이들 지역으로 1997년 한 해 동안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 9월 이후 17개월째가 된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 때의 J-커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림 2] 일본의 수출 - 엔화 표시



[그림 3] 일본의 수출 - 물량 기준



자료: 일본 재무성, 한국투자증권

최근에는 속도가 주춤했지만 장기적인 엔화 약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회복이 제한적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연초 일본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수주 자체가 부진한 것뿐 아니라, 과거에 비해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됐을 가능성, 즉, 다른 지역의 유사한 제품들로 대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주요국 수입에서 일본 의존도 약화

일본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은 두 번째 요인이 일본 수출 회복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작년 일본의 수출액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비중은 각각 18.5%, 18.1%로 양국 수출 비중만 약 37%가 된다. 금융위기 직전과 작년 수입에서 주요 품목별로 대일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경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제외한 상위 수입 품목에서 일본 의존도가 큰 폭 축소됐음이 확인된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발전기와 항공기 부품 등 여전히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뛰어난 품목이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수입 품목에서 대일 수입 비중은 확연히 줄었다.

〈표 1〉 중국의 대일본 수입 상위 10개 품목 비중 변화

HS 코드	품목명	2013년 수입액 (\$ mn)	품목별 비중 (%)	2007년 대일본 수입	2013년 대일본 수입	차이 (%p)	비고
8542	전자집적회로	12,674	8.0	11.2	5.5	-5.7	대만(6.6), 한국(2.3)
8708	자동차부품	7,247	4.6	40.1	30.0	-10.1	독일(9.1), 한국(1.6)
8703	자동차	6,881	4.3	27.7	14.5	-13.2	영국(9.3), 미국(8.8)
9013	디스플레이	6,632	4.2	10.4	11.9	+1.6	한국(3.9), 홍콩(2.7)
2902	환식탄화수소	4,763	3.0	35.7	20.0	-15.7	대만(5.6), 태국(5.5)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4,562	2.9	25.6	15.7	-9.9	한국(3.0), 홍콩(2.8)
8536	전기회로부품	3,489	2.2	25.4	24.3	-1.1	한국(4.0), 홍콩(3.9)
8486	반도체제조기계및부품	2,901	1.8	34.0	34.5	+0.5	한국(13.1), 싱가포르(4.8)
8443	프린터기기및부품	2,881	1.8	33.9	26.8	-7.1	홍콩(5.9), 베트남(4.6)
8532	축전기	2,472	1.6	39.4	22.0	-17.4	홍콩(4.1), 인나(2.2)

주: '비고'란은 해당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지역을 명시한 것임. 예를 들어 HS코드 8542 품목의 경우 2007년과 비교해 중국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5.7%p 축소된 반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 비중은 확대됐음을 의미. 비교란 괄호 안 숫자는 2007년 대비 2013년 각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확대폭(%p)을 표기한 것임
 자료: 무역협회

〈표 2〉 미국의 대일본 수입 상위 10개 품목 비중 변화

HS 코드	품목명	2013년 수입액 (\$ mn)	품목별 비중 (%)	2007년 대일본 수입	2013년 대일본 수입	차이 (%p)	비고
8703	자동차	37,806	27.3	32.4	24.6	-7.9	독일(3.8), 멕시코(3.2)
8708	자동차부품	8,792	6.3	18.7	15.3	-3.3	멕시코(7.5), 중국(4.2)
8803	항공기및우주선부품	3,846	2.8	22.4	25.6	+3.3	이태리(4.4), 멕시코(5.6)
8443	프린터기기및부품	3,765	2.7	26.9	20.4	-6.6	중국(8.3), 베트남(1.7)
8486	반도체제조기계및부품	2,808	2.0	48.6	49.3	+0.8	싱가폴(5.1), 한국(3.1)
8429	불도저, 앵글도저 등	2,611	1.9	49.8	52.4	+2.7	영국(4.9), 벨기에(3.4)
8411	터보젯, 터보프로펠러 등	1,995	1.4	7.3	10.1	+2.8	폴란드(2.9), 프랑스(1.3)
8407	피스톤식내연기관	1,834	1.3	23.4	18.0	-5.5	멕시코(12.3), 스페인(3.9)
8542	전자집적회로	1,809	1.3	10.9	6.2	-4.7	코스타리카(25.2)
9018	의료기기	1,622	1.2	9.3	9.1	-0.2	중국(3.8), 멕시코(2.3)

주: '비고'란은 해당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지역을 명시한 것임. 예를 들어 HS코드 8703 품목의 경우 2007년과 비교해 미국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7.9%p 축소된 반면, 독일, 멕시코,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은 확대됐음을 의미. 비교란 괄호 안 숫자는 2007년 대비 2013년 각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확대폭(%p)을 표기한 것임
 자료: 무역협회

■ 주요국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 하락으로 엔화 약세로 인한 효과 제한적일 듯

엔달러 환율이 올 들어 100엔 초반에 갇혀있지만, 1995년에 나타났던 장기 엔화 약세 국면과 비교했을 때 속도 면에서 유사한 흐름이다. 그러나 엔화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된 이후에야 실질 수출이 반등하는 J-커브 효과는 1995년 당시보다 더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수요 회복이 더딘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일본의 주요 수출국들에서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항공기와 원동기 핵심 부품 등 여전히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요 무역 상대국에서 대일본 수입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엔화 약세로 인한 단가 인하가 실제 수출 수요를 늘리는 효과는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4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정부의 안정성장 강조 불구 상해종합 약보합

- ▶ 국무원 선제적인 미세조정책 발표 언급하며 안정성장 의지 전달에도 불구, 상해종합 약보합
- ▶ 부동산 가격 증가율 둔화, 주택가격 할인판매, 주식보유 계좌 감소 등 소식도 부정적
- ▶ 홍콩H는 부활절 연휴로 4월 18~21일 휴장, 22일 개장 예정

상해종합 약보합 마감
석탄가스, 농임목어, 항공운
수, 은행 등 업종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2,098p로 약보합을 기록했다. 하락 출발 후 약세 흐름이 지속됐고 오후 들어 하락폭이 축소됐다. 거래대금은 725억위안으로 전날과 비슷했다. 국무원이 재정, 통화, 산업, 투자 등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인 미세조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해 안정 성장 의지를 전달했다. 상무부도 조만간 수출 확대를 위한 부양조치를 내놓겠다고 발언해 경기부양 기대가 높아졌다. 70대 도시 가운데 3월에 신축주택 가격이 상승한 도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절 연휴를 맞아 일부 부동산업체가 적극적으로 할인판매에 나설 것이란 루머가 확산돼 부동산과 은행 업종이 하락했다. 또 증시의 주식보유 계좌 수가 2010년 이후 가장 적다는 소식도 비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석탄가스(-1.7%), 농임목어(-1.1%), 항공운수(-0.4%), 은행(-0.2%), 요식업(-0.2%) 등이 약세였던 반면 의료서비스(2.6%), 영화방송(1.9%), 환경보호(1.6%), IT서비스(1.1%), 채굴서비스(1.0%), 석유(1.0%), 창고(0.8%), 목재가구(0.8%), 통신설비(0.7%), 임업(0.7%), 비철(0.6%), 증권(0.5%), 기계(0.5%) 등이 강세였다.

■ 홍콩 시장

부활절 연휴로 4월 18~21
일 홍콩증시 휴장

부활절 연휴로 4월 18-21일 홍콩증시 휴장.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4/18(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97.75	-0.05	-1.54	3.17	-0.86
홍콩 H	10,080.23	0.44	-3.27	0.05	-6.80
중국 차스닥	1,377.42	0.72	0.99	3.74	5.59
인도 SENSEX	22,628.84	1.58	-0.32	1.08	6.89
러시아 RTS	1,205.03	2.76	0.08	-1.72	-16.48
브라질 보베스파	52,111.85	1.78	1.93	3.37	1.17
베트남 VN	565.33	-2.58	-5.87	-4.44	12.03
MSCI 이머징마켓	1,009.22	0.67	-0.61	1.46	0.65

주:18일 오후 5시 35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2,000P선, 코스닥은 570P선 안착에 성공

- 미국증시는 성금요일 연휴를 앞두고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의 차익실현 매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6거래일 만에 반등, 2,000P선 재탈환에 성공.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엇새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의 매수세와 보험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더해지며 1% 가까이 급등, 570P선 안착에 성공. 하루만에 반등하며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반도체기업인 샌디스크의 실적 호조 및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상승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으며, 종속회사인 링크투모우를 흡수 합병키로 한 조이맥스는 거래정지를 앞두고 계열사 '네시삼십삼분'의 중국 진출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풀이식재 '라퓨젠 BMP2'의 안전성 입증 소식에 셀루메드가 이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음. 또한, 서울반도체의 실적 호조 및 LED 조명시장 성장 기대감에 LED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임. 반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진원생명과학은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삼천리가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SK하이닉스(000660) ▶39,200(+3.02%)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대비 1.85%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1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급등했다는 소식에 강세 - D램 업황 호조세에 따른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1분기 전체 매출은 3조7,600억원, 영업이익 1조300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
조이맥스(101730) ▶34,600(+5.49%)	중국 진출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네시삼십삼분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히트작 '활'을 중국시장에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활'은 지난 해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 출시된 모바일게임으로 누적 6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흥행작이며, 알리바바가 현재 구축 중인 모바일게임 플랫폼을 통해 연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
반도체장비업체주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더리의 전략적 제휴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더리의 전략적 제휴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강세. 이번 제휴를 통해 국내 중견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 주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 원익IPS(030530, +11.59%), 네패스(033640, +6.80%), 참엔지니어링(009310, +4.53%), 한미반도체(042700, +4.36%), 이오테크닉스(039030, +4.27%), GST(083450, +4.08%) 등 강세
LED 관련주	LED 조명시장 성장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반도체가 1분기 실적 호조 전망 및 중국 최대 LED 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에 급등한 가운데 올해 LED 조명시장 성장 기대감에 강세 - 서울반도체(046890, +6.64%), 오디텍(080520, +6.46%), 루멘스(038060, +5.45%), 인텍플러스(064290, +4.51%), 파인테크닉스(106240, +4.36%)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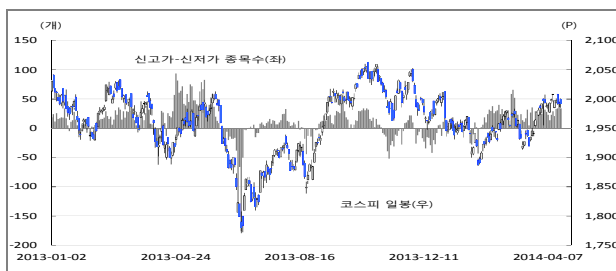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미국증시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판단 및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초저금리 기조 유지 발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 및 기업 실적 둔화 우려로 상승폭이 제한
- 국내증시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를 연출하며 570P선 안착에 성공했으며, 코스피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000P선 재탈환에 성공하며 한 주를 마감
- 봄철 결혼 특수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시행을 앞두고 수혜 기대감에 한샘, 하츠, 에넥스, 대림B&Co 등 건자재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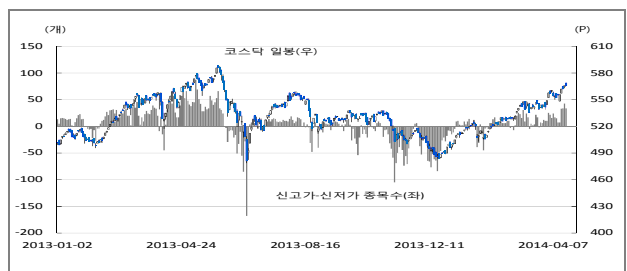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기계	신성에프에이	1,130	10.8	산업재	운수창고	현대글로벌비스	257,500	2.4
	IT	의료정밀	케이씨텍	7,300	4.3	유틸리티	유통업	SK가스	93,200	3.6
	소재	화학	동원시스템즈	9,590	2.0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신원	1,840	8.2
	소재	철강금속	황금에스티	5,630	4.6	경기소비재	운수장비	대유에이텍	1,680	7.7
	소재	유통업	이화산업	13,950	29.8	경기소비재	전기전자	경동나비엔	23,900	11.4
	소재	섬유의복	원림	18,400	10.8	경기소비재	유통업	대구백화점	24,900	10.4
	금융	증권	교보증권	7,120	19.9	경기소비재	운수장비	쌍용차	11,350	12.9
	금융	은행	제주은행	6,740	7.0	경기소비재	운수장비	덕양산업	31,900	35.7
	산업재	전기전자	가온전선	31,200	12.6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DRB동일	10,500	17.8
	산업재	비금속	한국유리	20,500	8.2	필수소비재	음식료	MH에탄올	5,330	22.5
	산업재	비금속	대림B&Co	3,535	4.3	필수소비재	음식료	삼양제넥스우	51,500	12.4
	산업재	화학	노루페인트	7,380	2.4	필수소비재	음식료	무학	27,850	9.6
	산업재	화학	건설화학	44,300	7.9	필수소비재	음식료	선진	28,800	5.3
	산업재	유통업	한샘	84,500	13.9	필수소비재	음식료	삼양제넥스	111,000	19.2
	산업재	미분류	에넥스	1,685	30.6					
	코스닥	IT	반도체	원익IPS	10,300	9.6	산업재	금속	이건창호	4,030
IT		통신장비	텔레필드	2,610	10.6	산업재	화학	프렘파스트	4,075	29.4
IT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61,000	7.2	산업재	종합건설	동원개발	22,200	5.0
IT		일반전기전자	에스텍	7,510	5.0	산업재	기계장비	신흥기계	14,300	10.0
IT		도매	소프트센	2,325	37.6	산업재	종합건설	삼일기업공사	18,050	12.1
IT		소프트웨어	코나아이	42,450	4.3	건강관리	제약	신일제약	9,200	17.3
IT		반도체	어보브반도체	8,700	17.6	건강관리	제약	이수엠지스	13,800	9.1
IT		기계장비	동아엘텍	9,210	4.7	경기소비재	일반전기전자	파세코	8,050	13.5
IT		통신장비	삼영이앤씨	9,640	9.7	경기소비재	운송장비부품	서진오토모티브	4,100	7.8
IT		IT부품	한국컴퓨터	5,390	9.3	경기소비재	금속	PN풍년	2,150	8.3
소재		금속	금강철강	3,010	10.1	경기소비재	오락문화	파라다이스	37,350	5.2
소재		화학	티케이케미칼	2,400	6.7	경기소비재	방송서비스	한국경제TV	2,045	6.5
소재		중,목재	삼성엘엔에스	4,845	4.2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풍국주정	8,600	6.3
산업재		환경	인선이엔티	3,950	23.1					

주) 상기 종목들은 4월 18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단기 유망종목: 바텍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바텍 (043150)	16,750 (+21.8)	13,750 (0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라인업 단순화(PaX-i 2D, PaX-i 3D, PaX-i3D Green)를 통한 효율성 및 수율 개선, 브랜드력 강화, 부품 공유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해외 주요업체들과의 단일공급계약 체결로 실적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축소된 가운데 자회사 Rayance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예상
이미지스 (115610)	6,900 (+1.0)	6,830 (0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부터 기존 GFF 방식 대비 원가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GF1 터치패널이 중저가 핸드셋에 대규모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사가 국내 글로벌 핸드셋 기업에 GF1 터치칩 상당부분을 공급함에 따라 주요 고객사 내 터치칩 M/S 1위 업체로 부상할 가능성 - 외형 및 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해 금년 예상이익 기준 PER은 7배 수준에 불과. 중장기적으로도 현재 개발 중인 태블릿용 GF1 터치칩 공급 가능성과 중국 로컬 기업에 매출 가시화 가능성 상존
영원무역 (111770)	42,650 (+9.1)	39,100 (0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아웃도어 1위 의류 OEM업체에서 종합 기능성 우븐(woven) 및 니트(knit) 의류 OEM 업체로 변모 - 신발과 백팩 등의 품목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키, 보드 및 자전거 웨어, 원단 사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 기회 모색 - 선진국 경기 회복, 신규 바이어 증가, 증설효과 본격화로 두 자리수 성장세 재개 예상
CJ프레시웨이 (051500)	28,350 (-2.4)	29,050 (0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급식 신규 거래처 확대, 대형 프랜차이즈 추가, 적자 거래처 정리 등으로 수익성 개선 기반 강화를 주목할 필요 - 외부적으로는 내수 경기 회복과 축산물 시세 안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유통마진 개선과 비용통제 및 이자비용 감소 예상. 실적 턴어라운드 예에 힘입어 안정 성장주로 재부각될 가능성
현대차 (005380)	245,000 (+5.2)	233,000 (0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H 신형 Genesis에 이어 LF 신형 Sonata가 3월에 국내 시장에 출시되며, 미국 시장에서는 각각 3월과 6월에 출시될 예정으로, 신차 효과 기대감 부각 - 중국, 터키, 브라질 공장의 Capa 증가로 올해 글로벌 판매대수 증가율이 전년보다 개선될 전망 - 제품믹스 개선과 양호한 해외 판매 호조세를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에스원 (012750)	82,500 (+5.8)	78,000 (0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관리사업 양수와 시스템경비 가입자수 증가, 보안상품 판매 성장으로 향후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4%, 28% 예상 - 주력 사업부인 보안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규사업의 확장성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현대차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SDI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4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성SDI (006400)	158,500 (+3.9)	152,500 (03/14)	5,038	136	310	6,896	23.0
			- BMW의 신제품 출시 및 Global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용 2차전지 부문의 고성장 기대 유효 - 소형 전지는 Mobile 신제품 출시 및 Tablet PC 출하량 증가에 따른 제품믹스 조정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 2차전지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실적 턴어라운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PBR 0.9배) 재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378,000 (+5.9)	1,301,050 (02/17)	223,332	34,356	29,059	192,471	7.2
			- 성장세 둔화와 함께 업체간 경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장 지배력과 기술 경쟁력, 마케팅 능력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할 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이녹스 (088390)	24,000 (+8.8)	22,050 (02/04)	273	53	41	3,356	7.2
			- 강도 높은 재고조정으로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부진한 모습이었으나, 최종 수요처인 모바일기기의 대면적화에 따른 수혜로 2014년 실적 개선 예상 - 반도체 소재 매출 성장과 신규 아이템 출시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이익구조 유지 예상				
SK텔레콤 (017670)	208,500 (-8.4)	227,500 (01/15)	17,176	2,328	2,189	30,860	6.8
			-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과 마케팅비용은 감소로 수익성 호전 추세 지속 - 초고속 LTE시장을 선점, 프리미엄 데이터 이용 증가로 2014년에도 ARPU 증가 예상 - SK브로드밴드와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실적 호전,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가용현금흐름(free cash flow)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주주이익 환원 정책 강화 예상				
힐라코리아 (081660)	87,000 (+10.1)	79,000 (12/30)	792	128	95	9,562	9.1
			- 작년 3분기를 바닥으로 영업이익 개선 추세 지속 예상 - 미국 지역 소비 경기 턴어라운드와 중저가 시장 점유율 확대로 힐라 USA 매출 고성장세 지속 전망 - 미국과 유럽 호조는 업계 내 경쟁력 강화와 유통사와의 시너지 확장으로 선순환 구조 형성				
고려아연 (010130)	326,000 (+2.5)	318,000 (12/30)	5,519	809	641	36,275	9.0
			- 아연과 연 생산 능력확대에 따른 장기 성장 잠재력 보유 - 환경 규제로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제련사 설비 증설이 제한되고 있어 아연과 연 가격 안정화 예상 - 비철금속 산업 최고의 경쟁력, Fumer 증설효과, 귀금속 및 상품가격 안정화 가능성 등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고려아연,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SDI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11(금)	4/14(월)	4/15(화)	4/16(수)	4/17(목)	4/18(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97.44	1,997.02	1,992.27	1,992.21	1,992.05	2,004.28	
	등락폭	-11.17	-0.42	-4.75	-0.06	-0.16	12.23	
	등락종목	상승(상한)	342(1)	409(1)	406(1)	398(2)	400(3)	469(1)
		하락(하한)	447(0)	387(0)	388(0)	395(0)	377(0)	309(1)
	ADR	104.92	106.78	104.42	103.80	107.72	107.94	
	이격도	10 일	100.15	100.07	99.83	99.86	99.86	100.39
		20 일	101.36	101.16	100.78	100.64	100.45	100.89
	투자심리	70	60	50	40	40	50	
	거래량 (백만 주)	218	206	195	231	200	202	
	거래대금 (십억 원)	3,558	2,951	3,499	3,311	2,910	2,723	
코스닥	코스닥지수	555.87	562.04	562.11	565.96	565.75	571.23	
	등락폭	0.77	6.17	0.07	3.85	-0.21	5.48	
	등락종목	상승(상한)	342(5)	409(7)	406(15)	398(20)	400(7)	550(8)
		하락(하한)	447(0)	387(0)	388(0)	395(1)	377(2)	362(0)
	ADR	99.31	107.44	103.50	105.23	106.22	106.27	
	이격도	10 일	100.39	101.13	100.90	101.44	101.25	102.03
		20 일	101.44	102.32	102.14	102.62	102.36	103.12
	투자심리	70	60	50	40	40	50	
	거래량 (백만 주)	302	282	362	385	386	343	
	거래대금 (십억 원)	1,859	1,895	2,023	2,292	2,462	2,130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구 분							기 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유가증권	매수	1,236.3	684.2	782.8	234.0	96.2	206.1	80.3	20.2	146.03	33.6
	매도	1,513.5	550.2	643.2	147.6	79.1	221.3	42.0	25.8	127.6	30.0
	순매수	-277.1	133.9	139.5	86.4	17.1	-15.2	38.3	-5.6	18.4	3.6
	4월 누계	-1,026.5	2,600.9	-1,547.8	-586.1	-28.9	-969.9	-126.0	-175.2	338.4	-26.6
	14년 누계	1,117.9	-908.4	-499.9	-2,662.4	412.6	192.6	-95.6	-525.5	2,178.5	290.4
코스닥	매수	1,899.5	113.6	119.1	25.9	17.9	34.5	12.8	3.7	24.3	19.5
	매도	1,982.4	66.6	81.6	20.5	9.0	27.0	4.7	1.8	18.5	21.2
	순매수	-82.9	47.0	37.6	5.4	8.9	7.5	8.1	1.8	5.8	-1.7
	4월 누계	-240.7	185.0	118.4	52.9	48.3	14.6	9.6	-15.2	8.2	-62.7
	14년 누계	-709.4	781.6	276.5	73.6	133.8	-20.0	17.9	7.8	63.5	-348.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4,123	금융업	-10,781
화학	6,408	운수장비	-6,213
은행	3,953	유통업	-5,354
SK하이닉스	31,187	삼성전자	-7,752
기업은행	4,001	KT	-5,167
삼성전자우	3,810	한국전력	-3,957
SK이노베이션	3,698	현대차	-3,794
LG화학	3,145	KB금융	-3,790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도	
전기,전자	17,073	전기가스업		-3,320	
운수장비	11,881	금융업		-2,856	
서비스업	4,392	유통업		-2,188	
SK하이닉스	13,133	한샘		-2,651	
현대차	5,445	하나금융지주		-2,558	
기업은행	3,926	KODEX 인버스		-2,173	
현대모비스	3,618	기아차		-2,139	
삼성전자	3,383	한국전력		-1,97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1,536	철강및금속	-3,245
서비스업	1,110	화학	-1,849
유통업	969	제조업	-1,759
KODEX 인버스	1,967	KODEX 레버리지	-6,698
KT	1,757	POSCO	-3,159
삼성SDI	919	KODEX 200	-2,843
코웨이	904	TIGER 레버리지	-1,921
롯데케미칼	779	KT&G	-1,781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6,332	금융업	-3,011
건설업	2,899	운수장비	-2,919
화학	2,623	서비스업	-2,669
SK하이닉스	19,594	KOSEF 200	-4,760
금호석유	4,122	KODEX 200	-4,140
삼성전자	3,272	기아차	-3,220
LG이노텍	2,396	신한지주	-2,415
호텔신라	2,139	한국전력	-2,244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40,052	전기가스업	-14,001
운수장비	16,755	금융업	-13,597
서비스업	15,139	철강및금속	-7,488
KODEX 레버리지	96,085	KODEX 200	-44,110
SK하이닉스	88,087	KODEX 인버스	-40,027
삼성전자	48,676	한국전력	-14,656
NAVER	23,683	기아차	-14,506
기업은행	12,710	KT	-6,785
현대차	12,130	하나금융지주	-6,022
현대모비스	11,388	POSCO	-6,014
대우조선해양	7,296	신한지주	-5,979
삼성전자우	6,206	한샘	-5,422
TIGER 200	5,501	대한항공	-5,174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도	
전기,전자	31,080	은행		-7,597	
전기가스업	15,458	화학		-6,355	
운수장비	15,026	운수창고		-4,223	
KODEX 200	47,891	삼성전자		-38,047	
SK하이닉스	47,848	한화케미칼		-13,583	
한국전력	15,698	아모레퍼시픽		-7,706	
LG전자	13,777	기업은행		-7,598	
LG화학	11,971	삼성전자우		-6,859	
현대차	7,703	TIGER 200		-4,602	
POSCO	7,652	GKL		-3,749	
삼성엔지니어링	7,637	현대모비스		-3,515	
기아차	7,406	금호석유		-3,020	
LG디스플레이	6,958	LG		-2,38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8,991	IT부품	-2,397
방송서비스	2,140	디지털컨텐츠	-1,442
전문기술	1,439	음식료,담배	-1,013
서울반도체	4,097	매일유업	-1,213
GS홈쇼핑	1,985	메디톡스	-1,097
오디텍	1,659	차바이오앤	-1,070
루멘스	1,473	조이맥스	-987
한글과컴퓨터	1,034	위메이드	-819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241	오락,문화	-176
출판,매체복제	372	IT부품	-114
디지털컨텐츠	124	통신장비	-105
서울반도체	714	CJ E&M	-144
네패스	496	제이콘텐트리	-142
에스엠	324	이오테크닉스	-120
인터파크	230	아트라스BX	-107
액토즈소프트	125	가온미디어	-85

(체결기준: 백만원)

외 국 인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6,327	음식료,담배	-1,798
오락,문화	7,264	오락,문화	-1,730
IT부품	6,028	IT부품	-1,708
원익IPS	11,798	매일유업	-1,914
파라다이스	6,775	파라다이스	-1,533
서울반도체	5,974	조이맥스	-1,326
루멘스	5,120	차바이오앤	-1,252
파트론	3,031	피에스케이	-1,239
에스엠	1,449	에스맥	-1,174
이라이콤	1,388	비에이치	-1,073
리훅큐텐	1,254	메디톡스	-1,007
피에스케이	1,154	위메이드	-955
인터플렉스	1,122	SBS콘텐츠허브	-887

외 국 인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6,327	음식료,담배	-1,798
오락,문화	7,264	오락,문화	-1,730
IT부품	6,028	IT부품	-1,708
원익IPS	11,798	매일유업	-1,914
파라다이스	6,775	파라다이스	-1,533
서울반도체	5,974	조이맥스	-1,326
루멘스	5,120	차바이오앤	-1,252
파트론	3,031	피에스케이	-1,239
에스엠	1,449	에스맥	-1,174
이라이콤	1,388	비에이치	-1,073
리훅큐텐	1,254	메디톡스	-1,007
피에스케이	1,154	위메이드	-955
인터플렉스	1,122	SBS콘텐츠허브	-887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외 국 인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6,327	음식료,담배	-1,798
오락,문화	7,264	오락,문화	-1,730
IT부품	6,028	IT부품	-1,708
원익IPS	11,798	매일유업	-1,914
파라다이스	6,775	파라다이스	-1,533
서울반도체	5,974	조이맥스	-1,326
루멘스	5,120	차바이오앤	-1,252
파트론	3,031	피에스케이	-1,239
에스엠	1,449	에스맥	-1,174
이라이콤	1,388	비에이치	-1,073
리훅큐텐	1,254	메디톡스	-1,007
피에스케이	1,154	위메이드	-955
인터플렉스	1,122	SBS콘텐츠허브	-887

외 국 인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6,327	음식료,담배	-1,798
오락,문화	7,264	오락,문화	-1,730
IT부품	6,028	IT부품	-1,708
원익IPS	11,798	매일유업	-1,914
파라다이스	6,775	파라다이스	-1,533
서울반도체	5,974	조이맥스	-1,326
루멘스	5,120	차바이오앤	-1,252
파트론	3,031	피에스케이	-1,239
에스엠	1,449	에스맥	-1,174
이라이콤	1,388	비에이치	-1,073
리훅큐텐	1,254	메디톡스	-1,007
피에스케이	1,154	위메이드	-955
인터플렉스	1,122	SBS콘텐츠허브	-88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국채3	37 일	KT&G 21 일
삼양	홀딩스	12 일	기아차 18 일
KOSEF	국고채	12 일	신한지주 18 일
KOSEF	10년국고채	12 일	LG전자 17 일
일진	전기	10 일	신세계 16 일
KStar	5대그룹주	10 일	오리온 11 일
한진중공	업홀딩스	9 일	대한항공 11 일
기업은행		9 일	LS산전 1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다음		10 일	성우하이텍 27 일
CJ오쇼핑		9 일	원익IPS 19 일
CJ E&M		9 일	우주일렉트로 14 일
GS홈쇼핑		8 일	루멘스 11 일
메디포스트		8 일	실리콘웍스 10 일
솔브레인		7 일	오스텍임플란트 9 일
오스텍임플란트		7 일	포스코 ICT 7 일
서부T&D		6 일	이오테크닉스 7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SK하이닉스		132,556	LG전자 104,086
KODEX	레버리지	63,084	기아차 83,043
현대모비스		48,843	KODEX 200 67,408
LG생활건강		41,055	POSCO 62,124
삼성전기		39,188	SK하이닉스 58,022
NAVER		36,388	한국전력 46,304
삼성전자		29,707	KT 45,118
기업은행		29,382	신한지주 43,112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오쇼핑		29,747	원익IPS 18,226
GS홈쇼핑		17,564	파라다이스 15,144
CJ E&M		11,631	루멘스 13,513
SK브로드밴드		7,036	셀트리온 8,985
바텍		4,900	리훅쿠첸 4,685
오스텍임플란트		4,753	성우하이텍 4,245
루멘스		4,519	아모텍 3,955
게임빌		4,489	포스코 ICT 3,674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KOSPI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40,052		31,080		171,132	
운수장비		16,755		15,026		31,781	
서비스업		15,139		12,534		27,674	
SK하이닉스		88,087		47,848		135,935	
KODEX 레버리지		96,085		480		96,565	
NAVER		23,683		5,917		29,600	
현대차		12,130		7,703		19,833	
SK텔레콤		4,558		6,936		11,494	
대우조선해양		7,296		1,827		9,123	
호텔신라		3,063		2,967		6,030	
삼성전기		1,491		2,850		4,341	
SK케미칼		3,688		11		3,699	
삼성물산		2,696		956		3,651	

종	KOSDAQ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23,148		26,327		49,475
소프트웨어			3,183		591		3,774
출판,매체복제			2,376		1,338		3,714
서울반도체			11,614		5,974		17,588
원익IPS			946		11,798		12,744
루멘스			3,751		5,120		8,871
에스엠			2,020		1,449		3,470
파트론			196		3,031		3,227
컴투스			1,417		1,113		2,530
네패스			1,050		992		2,042
게임빌			1,921		8		1,929
덕산하이메탈			1,074		447		1,522
리훅쿠첸			191		1,254		1,44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LG생명과학	42 일	기업은행	11 일	
팬오션	29 일	KCC	9 일	
SK	26 일	현대상선	7 일	
락앤락	17 일	현대모비스	7 일	
TREX 200	17 일	CJ대한통운	6 일	
아모레퍼시픽	15 일	현대하이스코	6 일	
기아차	14 일	현대엘리베이	6 일	
대한항공	11 일	한화케미칼	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성우하이텍	15 일	다음	12 일	
하이록코리아	8 일	CJ E&M	8 일	
유진기업	8 일	코미팜	7 일	
현진소재	7 일	포스코엠텍	5 일	
KCC건설	6 일	휴맥스	5 일	
모두투어	6 일	SK브로드밴드	4 일	
동서	5 일	KTH	4 일	
매일유업	4 일	현진소재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기아차	-84,750	한화케미칼	-65,690	
POSCO	-64,163	NAVER	-64,395	
KODEX 200	-62,981	기업은행	-42,034	
삼성중공업	-60,442	호텔신라	-30,687	
현대중공업	-50,101	SK	-27,143	
대우조선해양	-36,364	KCC	-21,747	
한국전력	-34,630	LG생활건강	-15,585	
대한항공	-34,363	현대차2우B	-13,891	

	KOSDAQ			
	기 관	외 국 인		
파라다이스	-6,511	서울반도체	-34,625	
매일유업	-4,579	CJ오쇼핑	-15,187	
KH바텍	-4,361	GS홈쇼핑	-11,904	
농우바이오	-4,153	KG이니시스	-10,891	
성우하이텍	-3,130	다음	-4,203	
에스엠	-3,081	인터파크	-4,057	
실리콘웍스	-2,675	SK브로드밴드	-3,201	
원스	-2,077	태웅	-2,93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창고	-1,693	-4,223	-5,916
섬유,의복	95	142	237
의료정밀	101	1,244	1,345
한화케미칼	-124	-13,583	-13,707
아모레퍼시픽	-477	-7,706	-8,183
CJ제일제당	-1,968	-848	-2,816
대림산업	-1,293	-1,175	-2,468
현대하이스코	-1,000	-853	-1,853
스카이라이프	-1,559	-165	-1,724
에넥스	-253	-1,261	-1,514
GS	-82	-1,404	-1,485
현대엘리베이	-489	-700	-1,189
넥센타이어	-318	-618	-936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장비	-359	-1,317	-1,676
도매	-706	-463	-1,169
사업지원	-649	-95	-744
차바이오앤	-1,252	-492	-1,744
녹십자셀	-71	-1,457	-1,528
비에이치	-1,073	-59	-1,131
스맥	-2	-1,124	-1,126
이지바이오	-551	-165	-716
KH바텍	-156	-549	-705
유니크	-541	-78	-619
삼천리자전거	-241	-310	-550
골프존	-205	-291	-496
하츠	-25	-446	-47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0	13,560	
NAVER	18	13,089	
기업은행	711	9,025	
한화케미칼	411	7,201	
LG전자	92	6,513	
POSCO	19	5,771	
엔씨소프트	26	5,350	
SK하이닉스	141	5,34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서울반도체	138	5,885	
차바이오앤	125	1,923	
컴투스	30	1,126	
에스엠	20	956	
매일유업	17	720	
아프리카TV	29	652	
SK브로드밴드	133	581	
파라다이스	16	569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305	4,527,394	
POSCO	9,203	2,839,052	
SK하이닉스	33,474	1,273,673	
현대차	4,093	982,427	
OCI	5,556	975,040	
LG전자	12,638	893,500	
NAVER	1,123	827,746	
삼성엔지니어링	9,923	769,05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3,070	647,618	
CJ E&M	499	551,342	
파라다이스	7,403	270,955	
위메이드	1,126	246,144	
파트론	7,128	107,993	
에스엠	2,043	97,234	
서울반도체	2,017	85,102	
씨젠	1,298	76,948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주 수	순 감	금액
증권	4,117	은행	-9,394
기계	3,476	전기,전자	-5,654
유통업	1,237	운수창고	-767
현대증권	3,341	기업은행	-9,394
KODEX 200	1,922	현대상선	-2,216
두산인프라코어	1,891	SK하이닉스	-2,127
중국원양자원	1,552	LG디스플레이	-1,710
SK네트웍스	1,473	대우조선해양	-1,414
한화생명	1,260	넥센타이어	-963
한솔홈데코	1,174	현대제철	-804
한진중공업	1,171	제일모직	-725
삼성중공업	1,138	LG전자	-702
팬오션	836	삼성엔지니어링	-64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주 수	순 감	금액
IT부품	1,060	계약	-620
전문기술	608	섬유,의류	-246
금속	591	컴퓨터서비스	-243
차바이오앤	818	원익IPS	-488
인터파크	802	셀트리온	-480
태웅	663	루멘스	-472
SK브로드밴드	494	파라다이스	-420
한국토지신탁	421	라이브플렉스	-331
하림홀딩스	304	포스코 ICT	-307
에스엠	268	토비스	-245
네오아레나	221	세운메디칼	-231
코엔텍	219	대아티아이	-211
STS반도체	210	인터플렉스	-188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14(월)	4/15(화)	4/16(수)	4/17(목)	4/18(금)
외국인	-908.4	2,600.9	456.8	-4.8	119.7	44.6	163.4	133.9
기관계	-499.9	-1,547.8	-452.6	-13.4	-311.0	-103.4	-164.3	139.5
(투신)	192.6	-969.9	-123.9	17.3	-71.2	-17.5	-37.3	-15.2
(연기금)	2,143.2	300.5	27.0	22.2	-16.0	-25.4	19.9	26.4
(은행)	-525.5	-175.2	-71.3	-12.0	-22.2	-15.8	-15.8	-5.6
(보험)	412.6	-28.9	-65.1	-19.2	-10.6	17.7	-70.2	17.1
개인	1,117.9	-1,026.5	-27.9	7.1	189.1	58.5	-5.5	-277.1
기타	290.4	-26.6	23.6	11.1	2.2	0.2	6.4	3.6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4/11(금)	4/14(월)	4/15(화)	4/16(수)	4/17(목)
KOSPI	1,825.7	1,997.1	2,011.3	1,997.4	1,997.0	1,992.3	1,992.2	1,992.1
고객예탁금	17,680.2	18,014.3	14,211.8	15,194.5	15,702.5	15,498.8	14,861.9	14,978.6
(증감액)	1,996.5	3,611.7	334.1	676.5	508.0	-203.7	-636.9	116.7
(회전율)	34.2	26.7	29.9	35.7	30.9	35.6	37.7	35.9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334.9	322.5	-133.3	-677.2	271.9
신용잔고	44,763.0	39,124.0	41,828.0	4,755.4	4,749.2	4,769.9	4,791.5	4,832.8
미수금	1,877.0	1,241.0	929.0	117.0	104.7	86.1	88.9	110.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4/11(금)	4/14(월)	4/15(화)	4/16(수)	4/17(목)
전체 주식형	82,368	-2,615	-1,115	-124	135	-178	-96	-167
(ex. ETF)		-809	-1,292	-101	65	-55	-47	-63
국내 주식형	63,206	-2,149	-1,009	-103	52	-167	-75	-155
(ex. ETF)		-353	-1,186	-81	-17	-43	-26	-51
해외 주식형	19,162	-466	-106	-21	82	-12	-21	-12
(ex. ETF)		-456	-106	-21	82	-12	-21	-12
주식 혼합형	10,309	344	-174	-91	-52	-15	0	14
채권 혼합형	23,058	205	26	6	33	-56	99	17
채권형	56,636	-724	1,242	74	-145	105	-115	114
MMF	78,500	11,687	4,345	288	720	2,147	1,853	-38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14(월)	4/15(화)	4/16(수)	4/17(목)	4/18(금)
한 국	-779	2,482	1,479	-5	115	43	157	129
대 만	4,924	2,310	1,040	229	186	185	31	112
인 도	5,216	651	297	-	-15	-10	-	-
인도네시아	2,833	700	323	0	52	30	59	-
태국	-393	235	182	-	-	8	54	-
남아공	1,545	820	121	37	59	-8	-	-
필리핀	559	166	33	8	17	7	-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3년	4/11(금)	4/14(월)	4/15(화)	4/16(수)	4/17(목)	4/18(금)
회사채 (AA-)	3.29	3.28	3.30	3.30	3.31	3.30	3.31
회사채 (BBB-)	8.98	8.98	8.99	9.00	9.00	9.00	9.01
국고채 (3년)	2.86	2.85	2.87	2.88	2.89	2.87	2.88
국고채 (5년)	3.23	3.14	3.16	3.17	3.18	3.16	3.17
국고채 (10년)	3.58	3.53	3.54	3.54	3.55	3.52	3.54
미 국채 (10년)	2.97	2.63	2.65	2.63	2.63	2.72	-
일 국채 (10년)	0.74	0.61	0.61	0.61	0.61	0.61	-
원/달러	1,055.40	1,035.00	1,038.90	1,040.90	1,037.70	1,038.80	1,037.40
원/엔	1,003.99	1,019.50	1,020.73	1,023.80	1,014.57	1,016.44	1,015.17
엔/달러	105.12	101.52	101.78	101.67	102.28	102.20	102.19
달러/유로	1.38	1.39	1.38	1.38	1.38	1.38	1.38
DDR3 1Gb (1333MHz)	1.37	1.38	1.38	1.38	1.38	1.38	-
DDR3 2Gb (1333MHz)	2.54	2.09	2.10	2.10	2.12	2.27	-
NAND Flash 16Gb (MLC)	3.43	3.02	3.02	3.02	3.02	3.02	-
CRB 지수	280.17	310.09	311.80	309.94	310.42	312.17	-
LME 지수	3,182.9	3,073.8	3,083.1	3,038.2	3,073.9	3,079.0	-
BDI	2,277	1,002	989	970	936	930	-
유가 (WTI, 달러/배럴)	98.47	103.74	104.05	103.75	103.42	104.30	-
금 (달러/온스)	1,189.10	1,319.00	1,327.50	1,300.30	1,303.50	1,293.9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4	15	16	17	18
美> 3월 소매판매 추정 MoM (1.1%, 0.9%, 0.7%) 2월 기업재고 (0.4%, 0.5%, 0.4%) 유럽> 2월 산업생산 SA MoM (0.2%, 0.2%, 0.0%)	美> 3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2%, 0.1%, 0.1%)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5%, 1.4%, 1.1%) 2월 총 순TIC흐름 (억 달러) (1677, n/a, 870) 4월 NAHB 주택시장지수 (47, 49, 46) 中> 3월 신규 위안화 대출 (1조500억, 1조, 6445억) 독일> 4월 ZEW 서베이 현재상황 (59.5, 51.5, 51.3)	美> 3월 주택착공건수 (만 건) (94.6, 97.0, 92.0) 3월 건축허가 (만 건) (99.0, 101.0, 101.4) 3월 광공업생산 MoM (0.7%, 0.5%, 1.2%) 유럽> 3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9%, 1.0%, 0.3%) 中> 3월 광공업생산 YoY (8.8%, 9.0%, n/a) 1분기 GDP SA QoQ (1.4%, 1.5%, 1.7%) 日> 2월 최종 광공업생산 MoM (-2.3%, n/a, -2.4%)		
21	22	23	24	25
日> 3월 무역수지 (엔) (n/a, -1조809억, -8025억) 2월 최종 선행지수 CI (n/a, n/a, 108.5) 2월 최종 동행지수 (n/a, n/a, 113.4) 실적발표> 美 김벌리클라크	美> 3월 기준주택매매 (n/a, 455만, 460만) 유럽> 4월 예상 소비자자기대지수 (n/a, -9.3, -9.3) 4월 유로존 예상 제조업 PMI (n/a, 53.0, 53.0) 실적발표> 美 넷플릭스, 컴캐스트, 맥도날드, 제록스, 염! 브랜드, AT&T 韓 삼성엔지니어링	美> 3월 신규주택매매 (n/a, 45만, 44만) 독일> 4월 예상 제조업 PMI (n/a, 53.8, 53.7) 실적발표> 美 P&G, 페이스북 韓 엘지디스플레이, 삼성카드	韓> 1분기 예상 GDP SA QoQ (n/a, 0.7%, 0.9%) 美> 3월 내구재 주문 (n/a, 2.0%, 2.2%) 실적발표> 美 쉘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애플, 코카콜라, 제너럴 모터스, 쓰리엠, 비자, 아마존닷컴,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韓 에스케이하이닉스, LG 생활건강,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 S-Oil	美> 4월 최종 미시간대 기대지수 (n/a, 83.0, 82.6) 日>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6%, 1.5%) 실적발표> 美 포드 韓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삼성전기, 삼성SDI, SK
28	29	30	5/1	2
美> 3월 미결주택매매 MoM	韓> 3월 BoP 경상수지 3월 BoP 상품수지 유럽> 4월 최종 소비자자기대지수	韓> 3월 산업생산 SA MoM 3월 광공업생산 YoY 美> FOMC 금리결정 4월 ADP 취업자 변동 1분기 예상 GDP 연간화 QoQ 日> 2014년 BOJ 통화정책회의 3월 예상 광공업생산 MoM 3월 주택착공건수 YoY 독일> 4월 실업률	韓> 4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4월 수출 YoY 4월 수입 YoY 美> 3월 개인소비지수 4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4월 ISM 제조업지수 中> 4월 제조업 PMI 日> 4월 자동차 판매 YoY	美> 4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4월 실업률 3월 제조업주주 유럽> 4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3월 실업률 日> 3월 실업률 4월 분원통화 YoY 독일> 4월 마켓 독일 제조업 PMI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